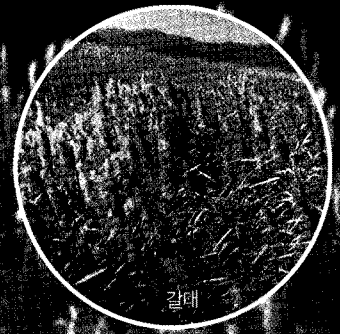


추수식물 중 혼동하기 쉬운

‘갈대와 억새 달뿌리풀’



갈대

억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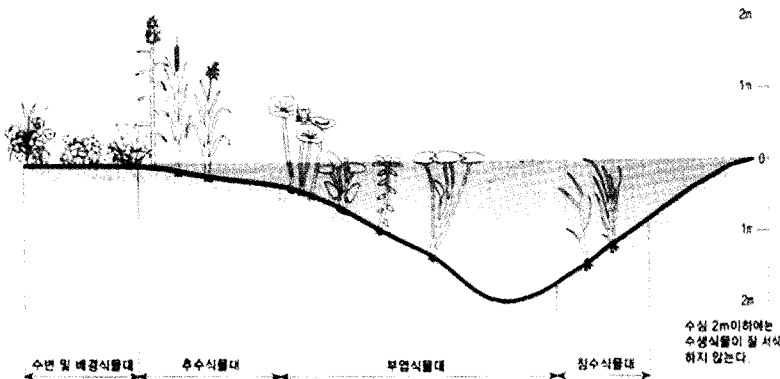
장형태
대한민국 종자명장 1호

수생식물은 관다발식물(양치식물 이상 고등식물) 중 물에서 자라는 식물로 자신의 생활사 중에서 적어도 한 시기는 물속에서 자라는 초본을 말한다.

공중에 있는 잎이나 뿌리가 산소를 흡수하여 세포간극을 통해 줄기나 뿌리 끝까지 산소를 공급하여 호흡한다.

수생식물은 크게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고착성 식물과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부생성 식물로 나뉘며 고착성 식물은 식물체 밑부분만 물에 잠겨 있는 추수식물과 식물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자라는 침수식물 식물체의 잎이 수면위로 떠있는 부엽식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수생식물은 약 180여 종에 이르며 추수식물 약 90여 종, 침수식물 약 40여 종, 부엽식물 약 20여 종, 부생식물 약 30여 종이 있으며 대부분의 수생식물은 다년생 식물이다.



수생식물 중 식물체 밑부분만 물에 잠겨 자라는 추수식물의 특징으로는 습지의 가장자리에 살며 뿌리는 진흙 속에 있고, 줄기와 잎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물위로 뻗어 있는 식물로 얕은 물가에서 자란다. 추수식물은 땅속 줄기에 통기조직이 발달되어 있어 근계(根系)의 호흡을 돕는다.

추수식물로 이루어진 초원을 정수초원이라고도 부른다. 갈대, 부들, 줄, 큰고랭이, 물부추, 연 등이 이에 속한다. 추수식물 중 혼동하기 쉬운 갈대, 달뿌리풀, 억새, 물억새의 다른 점을 알아보겠다

분류	식물명	갈대	달뿌리풀	억새	물억새
과 명		화본과 (Gramineae)	화본과 (Gramineae)	화본과 (Gramineae)	화본과 (Gramineae)
학 명		Phragmites communis Trinius	Phragmites japonicus Steud	Miscanthus sinensis Andersson	Miscanthus sacchariflorus (Maxim.) Bentham
원산지		전세계 온대. 한대지방	한국	한국,일본,중국	한국,일본,중국북부, 아무르
서식장소		습지, 호수주변모래땅	연못이나 냇강	산과 들의 건조한 곳	물가의 습지
개화기		8~10월	9~11월	9~11월	8~10월
특 징 기 타	엽신	- 길이 20~50cm - 나비 20~40mm	- 길이 13~36cm - 나비 10~20mm	- 길이 18~40cm - 나비 10~20mm	- 길이 40~80cm - 나비 10~30mm
	엽설	- 1mm 섬유상 잘게 갈라짐	- 1mm	- 1mm	- 1~1.5mm
	화서	- 개방원추화서	- 개방원추화서	- 수십개의 총이 짧은 중축에 배열, 총의 길이 15~30cm	- 수십개의 총이 짧은 중축에 배열, 먼지떨이 모양
	소수	- 2~4개의 소화로 됨	- 3~4개의 소화로 됨 - 소화의 기반에 털이 있음	- 한마디에 장병 소수와 단병소수 같이 달림	- 한마디에 장병 소수와 단병소수 같이 달림
	포영	- 제1포영 길이 3~4mm 제2포영 길이 5~8mm	- 제1포영 길이 4~4.5mm 제2포영 길이 5~7mm	- 제1,2포영 크기 모양 같음 길이 7mm	- 제1,2포영 크기 모양 비슷 길이 4mm
호영	- 길이 8~10mm, 기반은 뾰족하고 길이 1~1.5mm, 기반 털의 길이 7~8mm	- 길이 4~7mm, 나비 1~1.5mm, 기반은 3~5mm, 기반 털의 길이 7~8mm	- 끝이 2개로 갈라지고 갈라진 사이에 12mm의 찍인 모양의 까락이 생김	- 1,2 소화의 호영 길이 3.5mm로 같음 길이 8~10mm, 기반은 뾰족하고 길이 1~1.5mm, 기반 털의 길이 7~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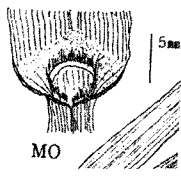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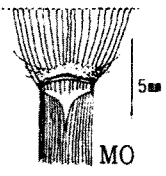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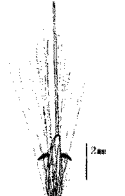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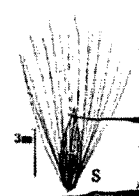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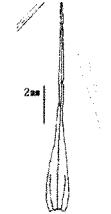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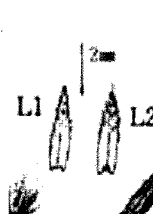
갈대는 줄여서 '갈'이라고도 부르며 뿌리가 땅속으로 내리고 엽설이 있다.

주로 바닷가나 강가에서 잘 자라고 꽃이삭이 갈색이며 촘촘하게 달려 한쪽 방향으로 고개를 숙인다.

달뿌리풀은 계곡이나 냇가에서 주로 자라며 바닷가를 싫어한다. 뿌리가 땅 위를 기어 마디에서 뿌리를 내려 달뿌리풀이라고 부른다. 갈대와 달리 엽설이 없으며 잎이 한쪽방향으로 줄기 마디에서 날개로 드문드문 자란다.

억새는 잎이 뿌리 쪽에서 포기로 자라며 잎 중앙에는 하얀 심이 선명하다. 종류가 다양하며 꽃이삭은 주로 은회색에 가까우며 고개를 숙인다.

이영득 저의 '풀꽃 친구야 안녕'에 보면 갈대와 달뿌리풀 억새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분류	식물명	갈대	달뿌리풀	억새	물억새
엽신과설					
화서					
소수					
포영					
해영					

아주 오랜 옛날 풀꽃들이 이 땅에 자리를 집을 때였어요.
다정한 친구 사이의 억새와 달뿌리풀과 갈대가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길을 떠났어요.
긴 팔로 춤을 추며 가다 보니 어느덧 산마루까지 올라가게 되었지요.
그러던 바람이 몹시 불었어요. 억새와 달뿌리풀은 줄기에 드문드문 나 있는 기다란 잎들이 바람에 휘날려서
몹시 건디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길다란 잎이 뿌리 쪽에 나 있는 억새는 견딜만하다며 말했어요.
“우와, 시원하고 경치도 좋구나. 사방이 한 눈에 보이는 여기가 좋아. 난 여기서 살래.”
그러자 갈대와 달뿌리풀은
“난 추워서 산 위는 싫어. 더 낮은 곳으로 갈래.”
하며 억새와 헤어져서 산 아래로 내려갔답니다. 한참을 내려가다가 개울을 만났어요.
마침 동실 떠오른 달이 물에 비치는 모습에 반한 달뿌리풀이 말했답니다.

“난 여기가 좋아. 여기서 달그림자를 따라서 뿌리를 뺄 수도 있겠다. 여기서 살자.”

달뿌리풀은 땅 위로 뿌리를 뺄어가기 시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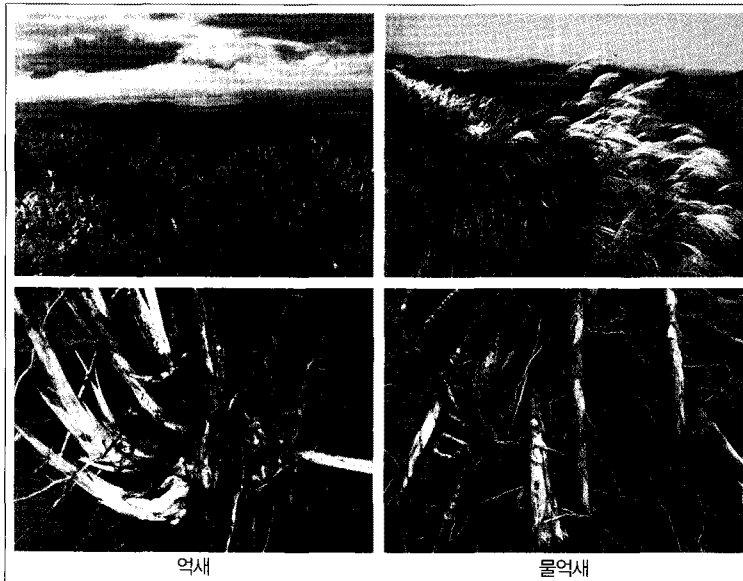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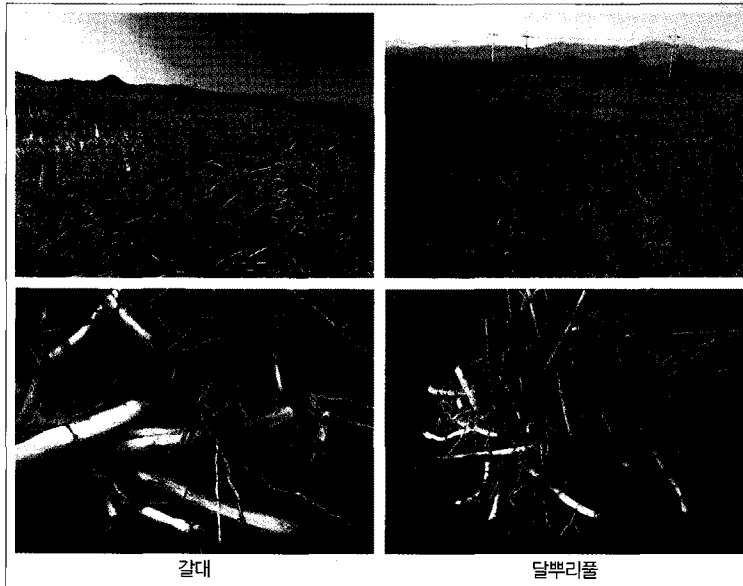
갈대가 개울기를 둘러보니 돌이서 살기에는 조금 좁아 보였어요.

내년이면 식구들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달뿌리풀에게 작별을 고하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며칠을 걸어가니 바다가 앞을 막았어요.

그래서 갈대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바다가 보이는 강가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갈대와 달뿌리풀 그리고 억새를 구별하기 힘들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세 식물의 차이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도서 : 이영득 ‘꽃꽃 친구야 안녕’